

일. 갈렘의 믿음:

❖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.

- 히브리어의 "갈렘"은 "개"를 말합니다. 갈렘의 삶이 말해주듯이 그의 이름은 경멸의 대상이 아닌,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을 상징했습니다. 갈렘은 모두가 배반할 때에도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. 다른 사람들이 움츠러들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.
- 열 정탐꾼들은 정복이 불가능한 성벽으로 둘러 쌓인 도시들과 거인들을 보고 돌아온 반면, 갈렘은 정복당할 성벽 도시들과 밥처럼 먹힐 거인들을 보았습니다(민 13:28-33; 14:6).
- 성난 군중들이 갈렘과 그보다 어린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할 때에도 그는 자기 신념을 굳게 지켰습니다 (민 14:10).
- 우리도 갈렘이 보여준 모본을 따라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.

❖ 믿음을 실천함.

-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한 후 보고하라고 했을 때, 갈렘은 "내 확신에 따라 보고" 했고 "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"(수 14:8)다고 회상했습니다. 갈렘의 충성에 대한 보상으로 그가 밟았던 땅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(수 14:9).
- 갈렘이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 파견되었을 때 40 세였고, 그 후 5 년간의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85 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(수 14:10). 그의 몸과 마음은 여전히 강건했고, 그의 신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(수 14:11).
- 드디어 이 약속을 주장하고 자신의 신념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.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갈렘은 거인들을 무찌르고 그들의 성읍들을 정복했습니다(수 14:12-14).

❖ 햇불을 다음세대에 넘겨줌.

- 갈렘은 자신에게 할당된 땅의 일부를 정복한 후, 자손들에게 남겨줄 유산을 생각했습니다. 그의 후손들은 자신처럼 하나님을 계속 신뢰할 것인가?
-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고, 이제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서 그 햇불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.
- 그래서 기랴세벨, 또는 드빌이라 불리는 지역을 정복한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(수 15:15-16).
- 갈렘의 조카 웃니엘은 그 도시를 정복한 용사가 되었고,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재판관이 되었습니다(수 15:17; 삿 3:9-11).
- 갈렘의 딸인 악사와 결혼한 웃니엘은 아버지를 설득하여 정복지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(수 15:18-19). 이렇게 그는 갈렘의 정신을 잇는 상속자임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.

이. 여호수아의 믿음.

- ❖ 모세는 여호수아가 젊었을 때 그를 보좌관으로 임명했습니다. 여호수아는 용감했고, 충성했고, 순종했으며, 큰 도움을 주었으며, 하나님의 사업을 사랑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증명되었습니다(출 33:11).
- ❖ 여호수아는 다른 모든 지파가 상속된 영토를 얻을 때까지 돕다가 마지막에 실로 근처에 성소가 세워져 있던 도시인 [딤낫세라], 즉 "다 나누고 남은" 땅을 선택했습니다 (수 19:50).
- ❖ 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배웁니다:
 - 믿음은 현(사)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, 현실을 바라보는 다른 다른 차원의 태도를 제공합니다
 -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
 -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
 - 우리 삶의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따라야 합니다
 -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삶은 가치 있는 삶입니다 (시편 84:10)

삼. 믿음을 얻는 방법.

- ❖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하셨는데, 특히 가장 좋은 모범이신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(히 12:1-2).
- ❖ 갈렘과 여호수아와 같이 굳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, 겸손한 태도를 키우고, 용기 있게 진리를 증거하는 법을 배웁니다.
- ❖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?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.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환영함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(고후 3:18). 능동적으로 움직일 때에만 변화됩니다. 갈렘처럼 변화되기로 선택(결심)하고, 그 사역에 참여해야 합니다.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산 제사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(롬 12:1-2).